

첫째로, 아이들을 위해서는 덤블링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한번에 2명씩 들어가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매 주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수십명씩 줄을 서서 덤블링을 탈 차례를 기다립니다. 점심을 즐기고 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랬듯이, 니카라과에서 덤블링을 타 보는 것은 특별한 행사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덤블링을 설치한 첫 주일에 몇명의 아이들이 다음 주에도 덤블링이 계속 있을거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덤블링을 임시로 빌려 와 하루만 놀게 하고 가져가는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장 시설입니다. 니카라과에는 축구를 마음대로 할만한 공간들이 잘 없으며, 특히 잔디가 깔린 축구장은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 교인들이 직접 자재를 구하고 용접을 해서 골대를 만들고, 풀을 깔고 땅을 고르게 해서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매 주 2-30 명의 청년들이 축구를 목표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축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서 교회에 나올 날을 기대합니다.

3. 라틴아메리카 선교센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설립 계획

니카라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육을 받은 지식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올해 2월에 실시된 대학 입시 시험 합격률이 6%였다고 합니다. 작년 6.5%에서 오히려 하락한 것입니다. 입학 시험에 합격하려면 평균 60%를 넘기면 되는 것인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최저임금을 받으며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가 없는 단순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저희 신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들도 있고,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본 지식과 배움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바로잡아 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선교센터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을 통해서 세워진 선교센터를 주중에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현지 아이들을 어린 나이부터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서 장차 니카라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시작하게 되면 필요한 물품이 참 많습니다. 책, 문구류, 장난감, 인테리어와 교구 등을 비롯하여, 중 장기 기간동안 교사나 기타 업무로 봉사하실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관심있으신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도움을 기다립니다. 제 이메일은 parktjin@gmail.com, 전화번호는 +505-8875-1644 입니다. 저희 소식을 더 자주 접하시려면 <http://misionla.org>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